



FGTC NEWS

49호

2020년4월 풀가스펠 신학대학/대학원 졸업식

특집①
P. 2

【긴급특집】 코로나대책 & 영상예배

~ 감염확산방지를 위한 교회활동과 대책 ~

특집②
P. 3

새기관 소개 100CHURCH추진본부

~ 2020년부터 시작되는 새교회비전과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 ~

특집③
P. 8

새 청년부담당 강세영목사 인터뷰

~2020년부터 청년부를 이끌 리더비전과 메세지~

기 타

2P ■ 시가끼 시게마사 담임목사 컬럼

4P ■ 새기관장 소개

5P ■ 지성전 소개

6P ■ 산포로선교

6P ■ 김치바자회

7P ■ 축복성회

(키미츠, 타치카와, 후지사와, 센다이)

8P ■ 2019년 은혜를 되돌아 보며

8P ■ 편집후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확산방지를 위한 소독작업

【긴급특집】 코로나대책 & 영상예배

감염확산방지를 위한 교회활동과 대책

2020년 3월 25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확산으로 도쿄 도지사가 외출 자제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이란 3밀(密; 환기가 잘 안되는 밀폐공간, 다수가 모이는 밀집장소, 밀접한 거리에서의 대화)를 피하는 것으로 순복음동경교회는 3월 29일 교회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영상예배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주, 시가끼 시게마사 담임목사와 교역자들은 평일의 모든 새벽기도회를 비롯한 모든 기도회, 예배를 온라인 영상예배로 진행하고 3밀(密)을 피하고 안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대책을 준비해 실시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어기고 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불타는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단3:17~18)

1. 매회 예배 전후로 성전을 알코올 소독
2. 환기를 위해 성전 앞뒤의 문을 상시 개방
3. 2층 로비에서 체온검사를 실시하여 미열이나 감기증상이 있는 성도는 예배출석을 삼가하도록 요청
4. 성전 입장 전에 손 소독과 장갑,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5. 1.3미터간격으로 마크된 자리에 착석함으로 옆 사람과의 거리 확보
6. 교회내에서의 교구, 각 기관의 기도회, 회의 등 중지
7. 교회학교예배를 온라인 영상예배로 전환, 또는 토요일에 현장예배
8. 교회식당 중지

이러한 대책으로 안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가 갖춰진 4월 5일(주일)부터 현재까지 주일예배는 현장예배로 드릴 수 있게 됐으며, 4월 12일 부활절 주일예배도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약자나 지병이 있는 분, 성도들 각자 사정에 맞춰 예배참석방법을 선택하도록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평일은 온라인 영상예배참석을 부탁드리고 있으며 현금입금계좌는 기존의 미즈호은행 외에 우체국계좌도 개설했습니다.

4월 7일 7개의 도부현에 내려진 긴급사태선언이 16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5월 6일까지였던 긴급사태시한이 5월 31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세상은 마치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진 것 같이 코로나를 앓고 있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의 고백을 배우고 세상의 목소리에 속지 않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맡기며 예배를 드리며 나갑시다.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시가끼 시게마사 담임목사 컬럼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성경의 다양한 비유는 하나님의 깊은 진리와 계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좋은 포도주를 만들 듯이 사람을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도록 연단하십니다. 포도주를 만드는 방법은 우선, 포도를 송이채로 그릇에 넣어 가지를 제거합니다.(분쇄 또는 제경이라 합니다.) 다음으로 열매를 발효시키기 위한 그릇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과실껍질과 씨가 분리되어 뜨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고 액체만을 단지에 옮겨 6개월에서 3년동안 재웁니다. 마지막으로 양금이 가라앉고 맑은 포도주를 병에 담아 더 숙성시키기 위하여 재워둠으로써 양질의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릇은 환경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최고의 포도주로 만들기 위하여 그릇에서 그릇으로 옮겨,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제경 그릇입니다. 이 그릇에는 세상의 다양한 것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구원받고 얼마되지 않을 시기의 상태입니다. 세상의 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송이의 가지를 제거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씩 제거해 주십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오해를 받고, 세상에서 소외되고, 쓰린 상처를 받습니다. 이 단계는 오해의 그릇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부부간, 친자, 친척간, 친구간에 오해가 생기고, 박해를 받습니다. 이 때, 우리들 자신이 주님 안에서 죽지 않으면 낫아지지 않으면 이 그릇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압은 짚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로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찌끼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예레미야 48 : 11~12

둘째는 발효의 그릇입니다. 연단의 그릇입니다. 이 그릇은 깜깜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며 희망도 빛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방향을 잊어버립니다. 기업의 파산, 가정의 파탄, 불치의 병으로 절망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때야말로 하나님께 양손을 들고 항복하여, 모든 것을 맡기는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괴로운 과정입니다만, 진실로 축복의 과정, 믿음의 성장기인 것입니다.

셋째는 저장조(술단지)입니다. 성숙의 그릇이라고 해도 되겠지요. 맑은 포도주를 더 숙성시키는 시기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 그릇의 시기가 되면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본인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알게 됩니다. 현신의 시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술단지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듯이 착실히 숙성이 진행되어 가고, 결국 얼굴이 비칠 정도로 맑아집니다. 이 성숙과정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니, 성령님의 도움없이는 성숙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병의 그릇, 순종의 그릇입니다. 입구가 좁고 협소합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 안에서 순종을 배워가고 “주님의 뜻대로”라는 기도가 입술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을 위하여 준비해 주신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기쁨으로 걷게 됩니다. 최고의 포도주가 만들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신학교설립·교역자육성·100개교회의 설립비전 ~ 100 CHURCH 추진본부



시가끼 시게마사 담임목사에게 주어진 하나님비전은 교회 3대 목표 중 하나인 “10개의 지성전설립”을 시작으로 2017년 9월의 삿포로성전설립을 거쳐 더 큰 도약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2019년 9월 18일, 아시아 리더스 서밋의 단상에서 국내외 수백명의 교역자들 앞에서 “순복음동경교회는 삿포로신학교를 설립하고 교역자를 양성해 일본에 100개의 교회를 설립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시가끼 시게마사 담임목사를 본부장으로 “100CHURCH 추진본부”가 발족되어 2019년 12월 20일에는 부분부장 및 신학교 설립, 교회설립기획, 졸업생훈련기획위원회 각 위원장들이 임명되었습니다. 2021년 4월의 신학교설립을 목표로 전력으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며 일본의 부흥을 갈망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100CHURCH 추진본부위원회



100CHURCH본부장
시가끼 시게마사 담임목사



100CHURCH부본부장
타나카 시게루 장로



삿포로신학교설립위원장
타케이시 테츠오 안수집사



교회설립기획위원장
사와다 요이치 안수집사

2020년 목표 삿포로바이블컬리지 개교를 향해

2020년에는 삿포로바이블컬리지 2021년4월 개교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학교설립에는 다음세대를 위해 일본선교의 길을 만들어낸다는 비전이 담겨있습니다.

– 삿포로바이블컬리지 설립배경과 비전 –

순복음동경교회가 올해로 설립43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설립 후 순복음일본총회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일본에서 80개 넘는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그 43년간은 교민선교와 현지인선교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인선교사들은 처음에는 일본선교를 향한 열의를 갖고 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한국인중심의 선교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선교의 기본인 현지언어를 습득하지 못한 상태로 현지선교를 포기해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어교육을 겸비한 신학교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일본선교의 소명을 받은 일본국내외 예비선교사들에게 철저히 신학과 일본어를 가르침으로써 졸업후에는 바로 진취적인 선교사로 주께 쓰임받는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1년 4월 삿포로바이블컬리지 개교가 무사히 실현되도록 성도님들의 기도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100 CHURCH 부분부장 타나카 장로로부터

일본에 100개의 교회를 만드는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시가끼 시게마사 담임목사님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큰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이번에 100CHURCH추진본부 부분부장으로 취임되었습니다. 부분부장으로서 매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땅에 100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일본 일천만구령이 반드시 실현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추진본부 부분부장
타나카 시게루

문서선교회 기자
시노자키 사카에





새 기관장 소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배소서 2:10



안수집사회
회장 : 이치만다 히데오



그레이스권사회
회장 : 장 영 자



권사회
회장 : 유카와 요시코



남성/동일본선교회
회장 : 사토우 카즈히로



여성선교회
회장 : 김 양 선



실업인선교회
회장 : 키요타 유키오



문서/러시아선교회
회장 : 타케이시 테츠오



IT선교회
회장 : 박 재 완



성가위원회
위원장 : 카네하라 히데오키



새가족실
팀장 : 최 은 혜



노방전도팀
팀장 : 권 원 기



클린선교회
회장 : 코바야시 노부요시



아가페선교회
회장 : 김 춘 록



굿피플선교회
회장 : 이 혜 경



문화예술선교회
회장 : 박 희 경



DCEM후원회
회장 : 정 민 주



홋카이도선교회
회장 : 윤 소영



중일본선교회
회장 : 김 명 빙



서일본선교회
회장 : 문 경 순



할렐루야 ! 지성전 & 아끼카와기도원을 소개합니다 !



긴시쵸지성전 양현근 담당목사

비전과 목표는 하나님께서 시가끼 담임목사에게 주신 비전을 함께 공유하여 일본 일천만 구령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담대한 복음 전파자가 되도록 성경공부를 통해 깊이 말씀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며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더 가까이’라는 슬로건으로 성령충만을 간구하며 달려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로 지역주민 3%에게 복음을 전하여 부흥을 이루는 것입니다.



후지사와지성전 한태순 담당전도사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으로 설립이는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함께 거룩한 비전 가운데 성도들과 한 마음으로 교회성장, 전도의 열정을 품고 기도하며 전진하고 있습니다.

목표

1. 가족구원, 전도
2. 주일 50명 성도 출석, 7명지/구역장
3. 주일학교, 여성선교, 남성선교 활성화

전 정도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길 ..



닛뽀리지성전 사사키에이코 담당전도사

닛뽀리지성전은 올해로 13년을 맞이합니다. 항상 사랑이 넘치고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로 성도들이 행복을 느끼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곁으로 인도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삿포로지성전 황만용 담당목사

할렐루야!

시가끼 시게마사 담임목사의 ONE HUNDRED CHURCH(100교회추진본부) 첫 걸음인 삿포로신학교 및 일본어학교설립에 전력을 다함과 동시에 삿포로성전의 축복과 부흥(주일출석50명)을 목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타치카와지성전 조지현 담당전도사

할렐루야

창립이래 3년간 순복음의 말씀으로 다듬어진 타치카와지성전은 주일성수와 십일조생활이라는 기본에 충실하며 지역의 복음화를 목표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가와사키지성선 고복덕 담당목사

가와사키시와 인근 도시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 일을 위해 본교회의 3대 비전과 3대 목표를 바탕으로 각 기관과 각 부서, 구역예배의 활성화에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질적, 수적인 부흥을 목표로 전 성도가 예수님의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지성전 윤경녀 담당전도사

〈목표〉

1. 가족구원
2. 주일예배출석 20명
3. 한 사람이 한명 전도하기

〈비전〉

가족의 구원을 기본으로 그 비전을 위해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가족같은 교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

1. 주일출석성도 100명
2. 성전이전
3. 각 기관의 활성화

방법에 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전능하신 우리의 삶에 주관자 되시는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렘 33:8).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저도 성도님들을 위하여 중보하겠습니다.



홋카이도 삿포로선교

2/16- 2/19

눈 덮힌 삿포로의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

홋카이도선교회와 문화예술선교회를 중심으로 한 선교팀이 치토세공항에 도착하자, 삿포로는 눈으로 덮여있었습니다. 공항까지 마중나오신 황만용 목사는 장갑을 끈 상태로 운전 하셨으며 성전 입구에 놓여진 커다란 넉가래는 선교지의 험난한 겨울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2/16 축복성회

축복성회에서는 시가끼 시계마사 담임목사가 마태복음 9:1~2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2/17-18 봉사활동 & 찬양예배

다음날 17일, 선교팀이 항한 곳은 2018년 9월 6일 홋카이도 이부리 동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아츠마쵸입니다. 10월에 해체예정인 임시주택에는 지금도 약 150세대 300여명이 지내고 있습니다.

선교팀은 한국요리를 가르치고 식사를 대접, 문화예술선교회는 공민관에 모인 아츠마쵸주민들을 무용으로 위로하고 희망을 전했습니다.



18일은 노인복지회관 오이소카이(老蘇會)를 방문해 문화예술선교회가 한국무용과 워십댄스를 선보였습니다. 그 중에는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신 분도 계셨으며 “받는 것 보다 주는 것이 복 되다”는 말씀대로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저녁에 드려진 찬양예배에서는 영의 감화감동을 받아 마음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귀중한 시간

을 보냈습니다.

100CHURCH추진본부의 기반이기도 한 삿포로성전이 주님이 주신 비전을 기반으로 사용되어 그의 기둥이 되는 성도분들과 황만용 목사부부의 의해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크게 성장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김치 바자회

- 하나된 마음 -

삿포로성전 신학교 설립을 위한 김치 바자회가 2월 9일(주일) 1층 주차장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손수 만든 갓김치와 배추김치, 무김치를 테이블에 진열하고, “김치 사세요!”라는 청년부의 목소리와 함께 성도들이 오가는 매우 활기찬 바자회 였습니다. 이날 판매한 모든 김치는 당일에 판매가 완료되었으며, 목표한 금액도 달성되었습니다.

이 바자회에 협력해 주신 모든 성도분들께 하나님의 미소가 있기 를 믿습니다.



축 복 성 회 리 포 트

순복음동경교회 타치카와지성전 축복성회

2월9일(주일)



창립3주년 기념축복성회가 타치카와지성전에서 열려 조지현전도사와 성도분들이 진심으로 환영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17절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신 주”라는 주제로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산상수훈 후에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백부장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과 중풍병으로 고통받는 하인에 대한 백부장의 사랑을 보시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구의 치유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까운 사람을 향한 사랑과 믿음에 의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드시 치유해 주십니다.” 신앙과 백시간에 일어선 여성분의 눈동자에는 아름다운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중보기도 시간에는 한마음이 되어 부르짖었으며 타치카와지성전에 주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이 넘쳤습니다. 말씀과 찬양, 기도 중에 주님이 임재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순복음키미츠교회 ~ 설립25주년 기념축복성회 ~

2월11일(화)



맑은 가을하늘처럼 좋은 날씨로 순복음동경교회의 교역자와 성도를 포함한 40여명은 치바에 있는 순복음키미츠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키미츠교회(과민섭 목사)는 치바교회(김재현 목사)와 이치하라교회(김성규 목사)와 함께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었으며 성회에는 치바현에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 성전은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청년들의 뜨거운 찬양이 이어지고 과민섭목사의 사회로 성회는 진행되었습니다. 설교자 시가끼 시게마사 담임목사는 마태복음 8:5~13절을 인용,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 후에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말씀과 믿음에는 생명이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으로 성경에 있는 치유와 기적을 근거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치바현의 3개의 교회에서 형제자매의 좋은 교제와 하나된 마음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동경, 카와사키, 요코하마를 볼 수 있는 파노라마 풍경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순복음센다이교회 ~ 종교법인취득 감사예배 ~

2월24일(월)



2011년의 동일본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순복음센다이교회는 피해 직후 취임한 신영국 담임목사와 성도들의 부단한 노력과 헌신으로 작년에 종교법인을 취득하였습니다. 종교법인 취득을 기념하여 동북지방의 많은 교역자와 성도들, 동경교회 20여명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설교자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를 모시고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영국목사의 사회와 함께 닛시 찬양팀으로 예배가 시작되고, 시가끼 목사가 요15:5~8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이 이어져 있고, 교회의 모든 성도가 서로 이어져 있음의 중요성과 하나님과 이어졌을 때 치유의 능력과 영원한 생명을 받고 풍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축복하는 자와 축복받는 자들이 하나가 된 듯한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종교법인을 취득한 순복음센다이교회는 그때의 큰 재해를 이겨내고 새 시작을 알렸습니다.

순복음동경교회 후지사와지성전 축복성회

3월8일(주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마태복음8:23~27절의 말씀으로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과 한 배에 탔고도 폭풍과 환난으로 인해 좀처럼 기도 응답받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들인생의 배에 항상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후지사와 지성전, 성도 한사람 한사람이 반드시 부흥될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후지사와지성전이 되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테루야 쿠미코 성도)”, “오랜만에 교회 온 것이 하나님께 죄송하고 예배를 드리는 생활을 회복하고 싶습니다.(김용 성도)”, “한태순전도사 취임 후, ①가족의 구원, ②성도 50명, ③ 7명의 지/구역장이라는 3대 목표가 세워졌습니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들이 되길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스즈키 유키에 성도)” 등 성도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강세영 목사 인터뷰

~ 개척교회목사님이셨던 아버지의 모습보고 자연히 목회자의 길로 ~

2019년 12월, 성도들의 많은 관심 속에 강세영목사가 청/장년부담당으로 부임했습니다. 중학생때 교회수련회에서 주님과 뜨겁게 만났다는 강세영목사와의 인터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강세영 목사 약력

영산싱어즈(여의도순복음교회 주일찬양팀)에서 10년간 찬양사역을 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여의도순복음교회 교역자로서 청/장년부, 성인교구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에 순복음동경교회 청/장년부담당목사로 취임해 청년부를 이끄는 리더사역을 하고있습니다.



인터뷰 (Q&A) 실시 : 1월 26일

Q. 목사님의 올해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A. 갑작스럽게 일본선교사로 파송받았기에 우선 일본 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와 제 가족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일본어로 설교하는 것도 목표입니다.

Q. 순복음동경교회의 첫인상은?

A. 초등학생 때 아버지가 교토에 선교사로 오셨을 때 동경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도 많고 활기찬 모습이었는데 지금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보며 참 감사함을 느낍니다.

Q. 일본선교와 청년사역에 대한 비전은?

A. 왜 하나님은 나에게 어릴 때 1년 반정도의 일본경험을 주셨던 것 일까?는 의문에서 일본 선교에 대한 어렵잖은 꿈 같은 것이 있었

습니다. 지금은 그 꿈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비전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Q.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이런 멋진 청년들을 섬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뜻을 함께 이루어 가길 소망합니다. 뜨겁게 함께하며,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바쁜 시간 속에서도 성심성의껏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사님의 사역을 응원하며 목사님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은혜를 되돌아 보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
어다.”
(시편 103:2)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전도서 3:11)

2019년은 “선교”라는 말이 빛난 해였습니다.

9월 신주쿠문화센터에서 열린 “아시아 리더스 서밋”에서는 각국의 목사들이 일본에 집결, 3월에 요조야를에서 열린 해피콘서트에서도 세계선교를 비전으로 본 교회다운 세계의 춤과 찬양, 성극과 글로벌한 영광이 빛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5:16-18)

편집후기

코로나바이러스 보도가 나간 지난 2월, 정기검진을 실시할 즈음 제 주치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잘 자고 잘 웃는 것, 무엇보다 웃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암세포까지도 공격합니다.” 면역력 향상에 효과적인 것은 ①영양소를 골고루 섭취 ②적당한 운동 ③충분한 수면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웃는 것도 매우 중요해서, NK(네츄럴킬러) 세포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연면역에 속하는 NK세포는, 체내를 순찰하고 외부침입자로부터 몸을 방어하는 역할을한다고 합니다. 일본에도 “웃는 집에 복이 온다”라는 속담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때 일수록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말씀대로 기뻐하며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E.M.)

3번에 달하는 삿포로선교, 러시아와 타이완 해외선교가 있었습니다.

뉴욕교회 양승호목사와 90년대에 본 교회담임목사로 계셨던 현재 신안

산교회 최용우목사의 방일도 있었습니다. 피서지인 카루이자와 메구미

샤레에서 주님과 함께한 은혜는 잊을 수 없었고 침례식에서는 많은 생

명이 눈부신 축복 속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지난 일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는 때에 맞게 아름답고 완벽했습니다. 그 중 조용기종 재목사의 설교를 직접 들을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말씀을 불잡고 기도와 성령 충만 할 것을 전했습니다. 2020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담대한 한 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특별축복성회

순복음동경교회
홈페이지는 여기
(홈페이지에서도 신문열람 가능합니다.)

<http://www.fgtc.kr>

발행 || 순복음동경교회

편집 || 문서선교회

주소 || 신주쿠구카부기쵸2-2-19

전화 || 03-3232-0067

FAX || 03-3232-0729

WEB || <http://www.fgtc.jp.kr/>

